

## 안전을 명제로 원자력안전문화 정착

김 진 현  
과학기술처장관

고창순 방사성동위원소협회 회장님,  
이 심포지움의 발표자로 일본에서 오신 전문가 여러분,  
또 발표와 질의에 참가한 우리 원자력전문가들,

오늘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 심포지움의 개최식에서 정부를 대표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현재 원자력평화적이용에 있어서 선진국에 못지않는 의욕적인 원자력사업계획을 가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은 현재 9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여 국내전력의 절반정도를 공급하고 있고 또다시 금년도에 3기를 착공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편 방사선이용분야에 있어서는 1962년도에 연구용원자로가 가동되면서 초창기에는 원자력발전 이용보다도 이분야의 이용과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나 '70년대 이후 원자력발전중심의 정부정책추진으로 한동안 그 발전속도가 지연된 면도 없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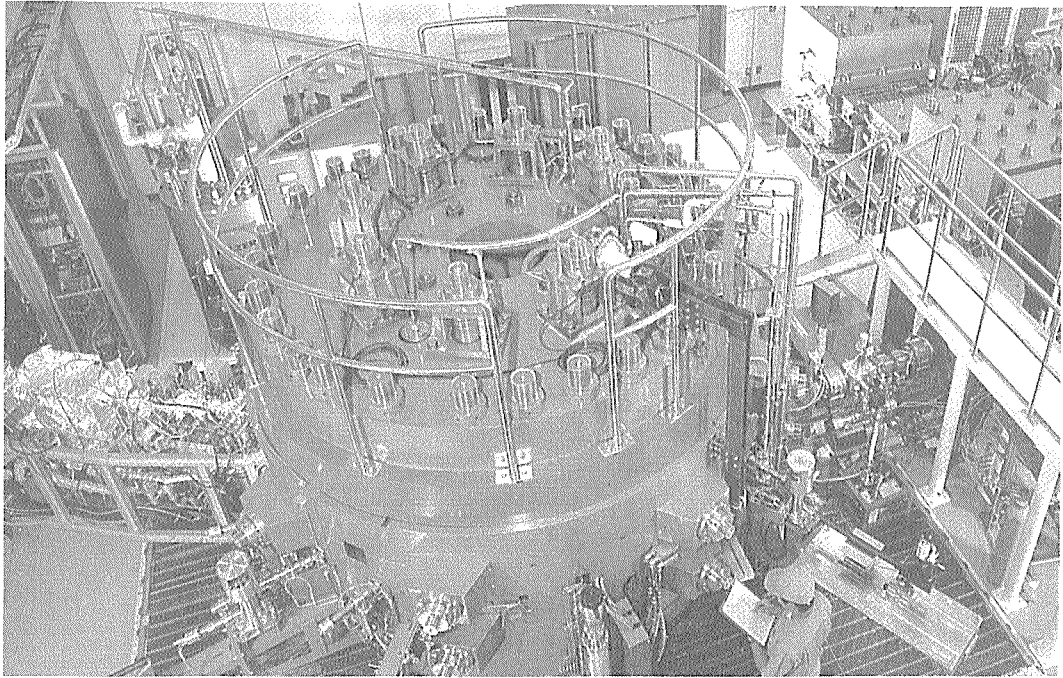
그러나 '8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고도산업발전에 힘입어 매년 15% 이상의 급격한 이용신장을 나타내어 그 이용기관수는 현재 700여개 기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회원사들의 꾸준한 노력과 상호협력의 결실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방사성동위원소협회 및 그 회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고도산업사회로 치닫는 오늘날, 방사성동위원소는 날이 갈수록 이용분야가 다양해지고 그 이용효과 또한 크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현재 의학·농업·공업분야의 질적성장을 꾀하기 위하여 방사성동위원소이용연구에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결과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원자력행정에 있어서 원자력발전분야에 못지않게 방사성동위원소 이용·발전에도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성안중에 있는 원자력이용개발 장기계획에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의 촉진과 안전관리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고, 방사성 동위



원소협회를 회원사의 지도육성을 위한 중추기관으로 그 기능이 정착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대덕 원자력연구소 부지내에 92년도 가동을 목표로 건설중에 있는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를 통해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공급기능을 크게 높일 계획이며 이를 통해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는 모든 분야의 연구 및 기술개발 활성화를 도모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원자력발전의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의 경우도 국민의 원자력이용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적극적인 협력을 어떻게 이루느냐가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방사선관리에 있어서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위해 힘쓴다해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동시에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는 기관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원자력관계의 어떠한 일을 하던지 또 어떠한 사업을 하던지 안전을 명제로 하는 “원자력의 안전문화”를 우선 정착시키는 것이,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정부가 힘을 합쳐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할 가장 중요한 문제요, 또한 최우선적으로 선행해야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와같은 Symposium이 자주 열려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방사성동위원소이용의 활성화와 활발한 국제협력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동시에 “원자력의 안전문화정착”에 기여하는 성과도 이루어지도록 힘써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Sympoium이 이러한 방향에서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고, 한일 양국의 협력이 가일층 강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의 말씀을 끝맺고져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1年 6月 11日